

데이터센터·국가AI컴퓨팅센터…해남군 AI수도 도약

국정과제 2조5천억 규모 인프라 구축
솔라시도 ‘AI 3대 강국 실현’ 핵심 거점
명현관 군수 “만반의 준비 갖춰야” 강조

국가AI컴퓨팅센터 조성사업의 유력 대상지로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가 사실상 확정되면 서 지역사회가 큰 기대에 들떠 있다.
28일 해남군에 따르면 국가AI컴퓨팅센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



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오픈AI·SK그룹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총 2조5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27일 정례회의에서 “삼성SDS 컨소시엄의 탁월한 선택을 환영하며 해남이 최종 입지로 확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RE100 국가산단 지정과 오픈AI·SK그룹 데이터센터 유치에 이어

국가AI컴퓨팅센터까지 해남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사진〉
지난 21일 공모 마감 결과, 삼성SDS 컨소시엄이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를 입지로 단독 입찰해 사실상 해남이 최종 사업 대상지로 굳어졌다.
이번 컨소시엄에는 삼성SDS를 중심으로 네이버·카카오·KT 등 주요 클라우드 기업이 참여했으며 사업자 선정과 추진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선협상대상자와 최종 입지를 확정하고 2026년에는 민간합작 특수목적

법인(SPC)을 설립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천장, 2030년까지 총 5만장 이상을 확보해 인공지능 학습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국가 차원의 AI 인프라 허브로 조성될 예정이다.
특히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는 ▲RE100 국가산단 지정 추진 ▲오픈AI·SK 데이터센터 후보지 부상 ▲국가AI컴퓨팅센터 유력 확정 등으로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했다.
해남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잠재력, 즉시 착공

가능한 광활한 부지, 기하발전특구 및 RE100 제도 기반을 모두 갖춘 전국 유일 지역으로 평가된다.
또한 수년간 에너지자립도시 기반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쓴 명현관 군수의 리더십이 이번 성과의 밑바탕이 됐다는 평가다.
명현관 군수는 “지금 해남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는 지역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대전환”이라며 “AI 수도로의 도약을 위해 박지원 국회의원, 김영록 전남지사와 협력해 해남이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가족과 함께 양을산 한바퀴' 행사에서 사회복지사와 가족, 지역주민 등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 제공>

목포사회복지사協 ‘가족사랑 걷기행사’ 성황

150여명 참여…화합·힐링 시간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가 사회복지사와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걷는 ‘가족과 함께 양을산 한바퀴’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28일 협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지역 복지 발전에 헌신하는 사회복지사와 및 가족,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화합과 힐링의 시간을 나누는 뜻깊은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김원이 국회의원, 박정수 목포농협 조합장(후원회장),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이미경 목포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 등

내외빈과 사회복지사 15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행사는 목포농협, 목포기독병원, 목포산협, (사)희망을나누는사람들, 아너스금융서비스,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열려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이뤄졌다.
박은주 전남사회복지사협회 회장은 지역 복지 증진과 전문성 향상에 앞장선 복지사들에게 공로패와 표창장을 수여했고, 이미경 협회장은 헌신적으로 일한 사회복지사들에게 협회장상

을 전달했다.
이미경 회장은 “사람이 세상의 주인공이며 그들이 함께 발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이들이 바로 사회복지사”라며 “오늘 행사가 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모든 사회복지사에게 위로와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원이 국회의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박정수 후원회장(목포농협조합장)은 “사회복지사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웃고 걷는 모습이 참으로 감동적”이라고 밝혔다. /목포=정해선 기자

나주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서명운동’ 돌입

내달 11일까지 온·오프라인

나주시는 28일 “다음 달 11일까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12만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여 기간은 11월11일까지이며 이달 31일까지는 집중 서명 주간으로 운영된다.
이번 운동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향한

시민 공감대를 확산하고,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범시민 캠페인 형태로 진행된다. ‘나주의 미래 성장 동력을 시민의 손으로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서명은 웹 기반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참여와 읍·면·동 주민서명 등 오프라인 참여를 병행한다.
대상은 19세 이상 나주시민, 관내 52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혁신도시 이전기업 임직원 등 1

2만명 전 시민이다.
시는 포스터·전단지·현수막 등 홍보물을 통해 서명운동을 알리고 거리 캠페인과 읍·면·동별 서명 종사원 운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윤병대 나주시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꿈의 에너지 실현 거점도시 나주를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12만 시민이 뜻을 모아 나주가 인공태양 연구시설의 최적지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독려했다. /나주=정준환 기자

완도수산물수출물류센터, 활 전복 수출 속도

활컨테이너 6대 추가 지원 등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사진)가 지역 대표 수산물인 활 전복의 수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완도군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완공된 완도군 수산물 수출물류센터는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HACCP(해썬) 인증 시설, 수조동, 냉동·냉장실, 급속 동결실, 가공실, 홍보관 등을 갖춰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수산물 수출 시스템을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일본, 대만, 베트남, 중국 등 주요 아시아 시장으로 활 전복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 물류시설 확충으로 향후 수출 성장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2023년에는 총 150t(38억원 규모)의 활 전복을 50회에 걸쳐 수출했으며 지난해에도 90t(25억원

규모)을 30회 수출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완도군은 수출 여건 개선과 확대를 위해 기존 5대의 활컨테이너에 더해 올해 상반기 6대를 추가 지원했다.



활컨테이너는 수출 과정에서 활 전복의 생존율과 신선도를 유지하는 핵심 장비로, 완도 수산물의 품질 경쟁력과 물류 안정성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앞으로 수출 물량과 횟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수출 컨테이너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해 안정적인 수출 기반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윤보현 기자

신안군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지급 완료

1인당 120만원 3천193명 혜택

신안군이 2025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 총 19억1천580만원을 지급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최근 사흘간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가 추진하는 2025년 하반기 ‘햇빛아동수당’이 지급됐다.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2023년 최초 시행 당시 1인당 40만원에서 매년 증액돼 왔다.
2025년에는 1인당 연 120만원이 지급되며 신안군 관내에 주소를 둔 만 18세 미만 아동 3천19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를 통해 누적 지급액은 72억원에 달한다.
수당은 지역사랑상품권과 햇빛아동적금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혜택을 확대했다. 특히 1천381명(전체의 43%)이 햇빛아동적금에 가입해 만기 시 7.5%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 등



미래 자산 형성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은 “햇빛아동수당은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 지원책으로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제도 보완과 확대를 통해 모든 아동과 가족이 더 풍요롭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햇빛아동수당’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혁신적인 복지 모델로 평가받으며, 아동 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신안=양홍기 기자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매주 수요일 야간 개방

‘한옥문화비엔날레’ 기간 동안

29일~내달 26일 오후 6~9시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은 28일 “다음 달 28일까지 ‘2025 대한민국 한옥문화비엔날레’ 기간 동안 매주 수요일 오후 6~9시까지 야간 개방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 개방은 시범 운영의 일환으로, 영암군민과 방문객에게 더 많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야간 개방 시간에는 미술관의 상설·기획 전시 관람은 물론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과 아트놀이터 활동도 즐길 수 있다.
관람 이후에는 인근 상대포역사공원에서 달빛과 경관조명이 어우러진 가을밤 정취를 만끽할 수 있어 방문객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전망이다.
김규화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 팀장은 “야간 개방을 통해 미술관이 더 오랜 시간 관람객에게



하정응미술관 홍원표 작가 개인전.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한옥문화비엔날레와 상대포역사공원 경관조명과 함께 많은 분들이 미술관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립하정응미술관은 이우환, 사갈, 마리 로랑생, 달리 등 세계 거장의 작품을 선보이는 하정응컬렉션전을 비롯해 한옥문화비엔날레 기념 특별전 ‘한국미술을 빛낸 남도 화가들’, 김서을 작가 개인전 ‘영0의 정원’ 등 다채로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영암=나동호 기자

함평읍사무소, 새 청사 본격 운영

어울림커뮤니티센터로 이전

함평군은 28일 “함평읍사무소가 어울림커뮤니티센터로 이전을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사진〉
어울림커뮤니티센터는 총사업비 207억원이 투입된 ‘함평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의 핵심 시설로, 행정·복지·문화 기능이 융합된 복합커뮤니티 공간이다.
기존 읍사무소는 청사가 노후하고 공간이 협소해 민원 대응에 한계가 있었으나 새 청사는 넓고 쾌적한 환경과 확장된 민원창구로 행정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복지·문화·보건 등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는 편의를 강화했다.
센터에는 주민자치센터·건강증진실·공동보육시설, 2층에는 대회의실·공유주방·동아리실



등이 마련돼 세대 간 교류와 주민 간 소통의 장이 될 전망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새로운 함평읍사무소는 단순한 행정청사가 아니라 주민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생활 중심 공간으로 거듭났다”며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환경 개선과 주민 중심의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김연수 기자